

### “전북 후원회원간 네트워크 구축”

#### 지구촌공생회 전북에 첫 지부 개설

국제구호활동 단체인 지구촌공생회(대표 월주가 첫 지부)를 전북에 개설하고 본격적인 지역활동에 들어갔다.



지구촌공생회 전북지부 개소식에서 우진 스님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지구촌공생회는 12월 4일 전북불교회관에서 전북지부 개소식 및 후원의 밤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지구촌공생회 전북지부 고문 우진 스님(김제 흥복사 주지)을 비롯해 관두삼 관장(전북불교회관, 前 김제시 부시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우진 스님은 전북지부장 원광 스님을 대신한 환영사에서 “지구촌 이웃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일에서 기쁨을 느끼며 노력하자”고 말했다. 지구촌공생회 전북지부는 전북도내 청소년 및 대학생들의 해외봉사 활동을 지원하고 아동·노인복지의 시각지대를 발굴해 지원사업을 펼치게 된다. 지구촌공생회는 전북지부 개설을 계기로 전북지역 내 800여 후원회원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후원교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해외구호사업 전반에 대한 홍보 및 자원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행사장 한편에서는 사찰전통음식 전문가 강옥실 선생(조선대 전통음식 발굴위원)의 도라지정과, 머위조림 등 27가지 사찰음식 시연이 곁들여져 눈길을 끌었다.

한편 지구촌공생회는 2004년 금산사 회주 월주 스님이 설립한 단체다. 캄보디아 케냐 스리랑카 라오스 몽골 미얀마 네팔 등에 학교를 세워 주는 교육지원 사업, 먹는 물 사업, 지역개발사업 등 국제개발기구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캄보디아에서 진행중인 ‘생명의 우물 1000프로젝트’ 사업은 현재 800여 개 재래식 우물을 조성해 오염된 물로 인해 질병이나 죽음에 시달리던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부장

## “종교, 지역문화 선도해야”

### 반야사회복지연구소 ‘나주 비전 토론회’ 개최

종교편향 논쟁은 사회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중요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호교적 차원의 대응이 종교이기주의로 비춰지는 것을 우려하는 시각도 많다. 이런 가운데 지역종교계가 나서 계층·이념·종교갈등 해소 등 지역현안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는 취지의 행사가 열려 눈길을 끈다.



12월 8일 나주 심향사 부설 반야사회복지연구소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원광 스님이 봉행사를 하고 있다.

나주 심향사(주지 원광) 부설 반야사회복지연구소는 12월 8일 심향사 설립전에서 ‘나주 미래·의식·비전 토론회’를 개최했다.

행사는 나주사암연합회장 효공 스님을 비롯해 강인규 의장(나주의회), 심운기 이사장(나주교육진흥재단), 강대영 목사 등 나주 지역 인사 100여 명이 참석했다.

원광 스님은 봉행사에서 “나주의 제반 문제에 대한 고찰과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 개진을 통해 해답을 찾고자 마련한 자리”라고 말했다. 스님은 “이제는 종교계가 지역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지역문화를 선도하고 기여해, 새로운 문화중심의 한축으로 자리매김해 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안호자 교수(동신대)는 주제발표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학교 적응과 심리상태’에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해와 협력을 당부했다.

박정욱 前 교장(나주 금성중학)은 “나주 교육의 발전방안”을 통해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할 제도로 농어촌특례입학제도를 지적했다.

박 씨는 “나주는 이 제도에도 들지 못하는 지방도시다 보니 인근 광주광역시나 특례제도가 적용되는 인근 학교로 우수학생들이 유출되고 있다”며 “종교기관 등이 나서 ‘내 고장 학교보내기 운동’ 등을 펼쳐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한편 ‘봉헌면 옥산분교의 활용방안’을 주제로 김준현 사무국장(나주문화원), ‘상생의 길’을 주제로 고대우 이사장(나주세마)을 겸고이, ‘영산강을 살리자’를 주제로 김범용 대표(푸른나주21)가 잇달아 발표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부장

### 사중 건강 지키기 나서

#### 장성 백양사 정진 대중에게 무료한방진료



백양사 스님 등 사부대중은 12월 11일 무료한방진료를 받았다.

무자녀 동안겨 정진 중인 사찰에서 스님들을 대상으로 무료 한방진료가 실시됐다. 고불총림 백양사(주지 시몽)는 12월 11일 서울 강남구 미래문화의원(원장 조남경)의 도움으로 정

진 중인 대중 100여 명에게 의료 진료를 실시했다. 백양사 관계자는 “매일 정기적으로 무료진료를 펼쳐 대중들의 건강을 살피겠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부장

### 판소리 태극권 즐기는 위풍당당 노년

#### 서원노인복지회관 어르신 잔치

고령화에 따른 노인 인구 증가로 노인 복지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때, 지역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축제를 펼쳐 눈길을 끈다. 금산사 복지원(대표 원행) 산하 서원노인복지회관(관장 덕립)은 12월 9일 전주 전통문화센터 한벽극장에서 ‘위풍당당 우리들의 축제’를 주제로 어르신 잔치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원혜 스님(남고사)을 비롯해 송하진 전주시장, 조지훈 전주시의회 부의장 등 내외빈 500여 명

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2008년 한 해 동안 복지관을 이용한 300여 어르신들은 판소리, 태극권, 요가 등 13개 팀으로 나뉘어 갈고 닦은 실력을 뽐냈다. 금산사 복지원 대표 원행 스님의 축사를 대독한 원혜 스님은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하면서 건강하고 알찬 노년을 즐기시라”고 당부했다. 덕립 스님은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편안하게 복지관을 애용해 주시길 바란다”며 “내년에도 더욱 알



12월 9일 전주 전통문화센터 한벽극장에서 어르신 축제가 열렸다.

찬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역 어르신들이 편안한 노후를 즐기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부장

# 올겨울 추위, 난방비 걱정 끝!

## 냄새없고 전기료가 부담없는 태성전기난로로 해결하세요!



●산업용(공장, 기업체) 20평형  
최대화력 1일8시간 사용시 @67.90×2.5kW×8시간=1,358원  
(안전인증번호) NS-7600 : HH07142-2008D  
특별할인가: 198,000원 (택배비 4,000원 소비자부담)



●상가용(15평형)  
최대화력 1일8시간 사용시 @67.90×1.8kW×8시간=978원  
(안전인증번호) NS-7800 : HH07142-1004C  
특별할인가: 178,000원 (택배비 4,000원 소비자부담)



NS-7000



●상가용(10평형)  
최대화력 1일8시간 사용시 @67.90×2.9kW×8=1,575원

실내전체가 훈훈해지는 태성전기난로  
난방비 90%절약!!! 최대화력 1일8시간 사용시 @67.90×1.8kW×8=978원

태성전기 난방기 이런 곳에 사용하세요

- 24시간 쾌적한 난방이 필요한 곳과 지속적인 연료 주입이 어려운 장소
- 상주 인구가 많아 산소결핍으로 자주 환기를 해야 하는 곳
- 이동 인구가 많아 시설물 손상에 의한 화재 및 폭발의 위험성이 있는 곳
- 대형매장이나 식당 등 주난방은 있으나 사각지대가 있어 보조난방이 필요한 장소

100% 국내산 / 중국산과 비교불허!

- 복고풍 디자인의 안전한 전기히터
- 좁은 공간에서도 편리한 소형본체
- 이동이 간편하고 온도조절이 용이
- 상판위에 물을 대워 실내가습효과
- 전도 안전 장치로 쓰러지면 자동으로 전원차단
- 360도 전방향 적외선 열기전달
- 무소음 / 무취 / 무연

일반히터는 히터 주변만 따뜻하지만 태성히터는 실내온도를 상승시켜 실내공기를 훈훈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주 사용자 : 사무실등 협소한 장소, 이동이 잦은 곳, 접객업소(식당 / 주점 / 팬션)

강력한 화력! 저렴한 전기료! 편리한 이동성! 전기 난로의 진정한 強者! 태성전기히터!